

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교육은 비즈니스인가?

“교육계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 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학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대학이 추구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초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내용을 어떻게 해서 건전화시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수지를 흑자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학교는 영리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출자자를 모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학교는 원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얻어서 가까스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과 재무라는 것을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올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많은 지원을 모을까”라는 식으로 고쳐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지원’이라는 것은 ‘출자’와는 다릅니다. 확실한 ‘배당’을 목표로 한 ‘지원’ 같은 건 대학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논리는 예정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한 비용에 상응하는 형태로 지원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것도 곧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내었던 것-부담했던 것’이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서 언젠가 돌아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류(流)의 호홉이 오로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분에게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대학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매우 명확하고(clear-cut)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에도 시장원리, 경쟁원리를 도입합시다’. ‘경영노력을 게을리 하는 학교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퇴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페어(공정)한 것이다’라고...

그것만 들어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이 분들은 교육과 비즈니스는 각각 다루고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시간 모델’입니다만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시간은 돈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시간차가 제로인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아시죠.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기획이 나오고 나서 제품화가 되고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시간차(time lag)’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켓이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될 터인데 훌륭한 상품이라면 매상이 오릅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으면 곧 바로 시장으로부터 퇴출됩니다.

비즈니스의 상식 그 하나는 ‘마켓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의 성패는 마켓에 의해서 곧바로 검증됩니다. 마켓이 거절한 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은 본인이 아무리 ‘이것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우겨대도 누구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바로 이것이 비즈니스의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일에 대해 곧 바로 판정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였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투자로부터 그 성패 판정까지의 시간은 가능한 한 짧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돈’이니까 ‘시간은 돈’이라는 것은 시간은 화폐로 치환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단적으로 그것만큼 ‘돈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마켓이 곧 반응하지 않을 때 ‘언젠가’ 팔리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의 생산라인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재고를 늘이는 것은 ‘손실’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은 ‘마켓에서는 모든 흐름과 활동이 ‘시간차제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쿄의 증권거래소와 시티의 거래소에서는 인터넷에서 주식 매매를 할 때에 키보드를 누르고 나서 거래가 성립할 때까지의 시간차가 소수점 몇 자리 차이로 시티가 이겼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시티로 흘러 들어갔다 라는 식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키보드를 누르고 나서 화면에 문자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차가 제로인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키를 누르고 나서 문자가 표시되기까지 1초의 시간차가 있는 컴퓨터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고, 하물며 키를 누르고 나서 1분 지나고 나서 겨우 문자가 표시되는 기기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교육은 타성이 강한 제도이다’라고 말한 것은 교육은 ‘키를 누르고 나서 문자가 표시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것은 “공을 들인 것과는 다른 모양새로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시스템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키보드를 누르면 화면에 문자가 나오는 대신에 3일후에 친구로부터 그림엽서가 도착한다든지 3년 후에 호박을 2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맨은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맨의 생리와 논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이는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부모입니다.

헌법 26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맞게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같은 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보호할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시킬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다니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부모 쪽입니다.

왜 부모에게 아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은 교육사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이들을 부모에 의한 수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동노동’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만 산업혁명이래 아이들은 노동력으로서 소모품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동기 중의 하나는 동시대의 영국의 아동노동의 실태였습니다.

『자본론』의 제1권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논하는 중 마르크스는 노동의 착취의 눈에 두드러지는 예로서 아동노동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에 9살부터 10살의 아이들을 더러운 침대에서 두들겨 깨워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들의 손발은 마르고 체구는 쪼그라들었고 얼굴 표정은 무디어졌고, 그 인격은 전혀 돌과 같은 무감각 속에서 경직되고 겉으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성냥제조업은 그 비위생과 불쾌함 때문에 아주 평판이 나빠서 기아에 허덕이는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가장 영락(零落)한 층만 아이를 보내는 형국이었다. 그 공장으로 보내져 오는 것은 ‘녕마를 두르고 아사직전의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270명이 18세미만, 40명이 10세 미만, 그중 10명은 8살, 5명은 여섯 살이었다.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14, 5시간에 걸쳐서 야근, 불규칙한 식사, 게다가 대부분이 질소독에 오염된 작업소내에서의 식사였다.

그 무렵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방적공장의 자본가들은 고아와 빈민가정의 아동을 나라 안에서 모아서 저임금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탄광 같은 위험한 노동에도 종사시켰습니다.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글도 못 읽고 사칙연산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술과 도박을 배우거나 소녀들은 매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노동과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빨리 죽었습니다.

마르크sm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가치설’을 전개하였지만 똑같은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의무교육’이라는 이념도 생겨났습니다. 발생적으로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부모와 고용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Elisabeth Badinter의 『모성이라는 신화』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절대왕권의 시대는 ‘부모가 아이를 처벌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각 가정의 권력적으로 재편된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앙리3세의 고지-告知(1579년)에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결혼은 유포라고 간주해서 유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친의 징벌권’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화됩니다. 1684년의 법령에서는 ‘부모에 반항한 자, 게으른 자 방종한 자, 방종하게 될 것 같은 자는 남자는 비야틀에 여자는 사르베트리엘에 감금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1763년의 루이 15세의 법령은 ‘가정의 명예와 평안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있는 행동을 한’ 젊은 남녀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법령은 그러한 아이들을 데시라드 섬(서인도제도)의 육군과 해군의 관할지에 유배 보내는 권리를 부모에게 주었다. 유배지에 보내어진 아이들은 엄중하게 감시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를 제공 받고 과중한 노동을 강제당했다. 복역기간이 지나면 회개한 자는 말리섬에 토지가 제공되었다. 그 뒤에 부모가 희망하면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예수회가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16세기에 Ignacio

López de Loyola, Francisco de Xavier 가 설립한 이 수도회는 이후 250년 동안 650개 대학을 세우고 무수의 초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유럽에서 학교교육을 19세기까지 지탱해왔습니다. 그 예수회가 교육에서 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의 징벌권’의 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세로부터 계속되는 교회의 친권개입의 흐름을 담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크리스티교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는 아이를 자신들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된다. 신이 준 선물이든 잃어버려야 할 십자가든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는 문화를 가진 우리들 일본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회사(會士) 루이스 프로이스는 『유럽문화와 일본문화』에서 수행한 비교문화적 고찰 중에서 ‘부모의 징벌권’을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보통 매를 들고 아이를 징벌한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말로 질책하는 것뿐이다.

결국 ‘의무교육’이라는 이념은 이러한 ‘부모에 의한 징벌’과 ‘부모와 고용자에 의한 아이의 수탈’을 공적기관이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교육적 사실을 먼저 확인해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